

경제

14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아시아나-대한항공, 국내 '셀프체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9월부터 국내 공항에 셀프체크인을 전면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9월 1일부터 자사가 취항하는 모든 국내 공항 일반석 카운터를 모바일 체크인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셀프 체크인 전용 수하물 위탁(Bag Drop) 카운터로 전환한다. 단 교통약자, 비동반 소아, 임신부 등을 위한 '한가족 서비스' 카운터와 일등석, 프레스티지클래스, 모닝캄 카운터 등은 기존 대로 운영한다. 대한항공은 키오스크 체크인 시 승객이 직접 좌석 배정과 함께 수하물도 등록하는 '셀프 태깅' 서비스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9월 1일부터 국내선 카운터를 셀프체크인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김포, 제주, 광주, 청주, 대구, 여수공항 등 아시아나가 취항중인 국내선 공항에 수하물 전용 카운터만 운영한다. 승객들은 사전 모바일 체크인이나 공항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한다. 단,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승객이나 우수회원을 위한 카운터는 운영한다.

김재범 기자

9월부터 두달간 '할랄 레스토랑 위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할랄 레스토랑 위크 코리아' 프로모션 이벤트를 개최한다. 우선 한국관광공사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사업 소개, 퓨전 할랄 한식메뉴 시연회 시식회 등의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방한 무슬림 관광객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 친화 인프라 홍보와 한국관광 판촉전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한국을 찾는 무슬림 등 외국인 관광객은 152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과 40개 주요 관광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 | 가을여행주간 '취향저격 마을여행 20선'



함안 '강주해바라기마을'



담양 '삼지내마을'



당진 '할매마을'

헤민스님과 '삼지내마을'로 떠나볼까

세프 등 명사들과 떠나는 여행 신설 개평마을·할매마을 등 20곳 선정 여행주간 '만원의 행복 기차여행'도

가을여행주간이 돌아왔다.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의 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진행한다. 여행주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육성, 여름철 휴가 쏠림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여행 캠페인이다. 그동안 국내여행 수요를 이끌어내고 잘 알려지지 않던 지역 명소가 주목받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6년째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 캠페인 대표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가을여행 20선, 만원의 행복 등 진행 올해 여행주간의 테마는 '취향 따라 떠

나는 특별한 보통날'이다. 마음 내키면 부담없이 떠날 수 있는 국내여행의 매력을 강조한 주제다. 봄철에 이어 가을 여행주간에서도 김태영 로케이션 전문 디렉터가 추천한 '취향저격 마을여행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20개 마을 중 태백 철암탄광역사촌, 담양 삼지내마을, 함양 개평마을, 당진 할매마을 등 4개 지역을 그룹 여행스케치, 헤민스님, 유현수 셰프, 방현수 스마트폰사진강사 등 명사들과 함께 여행하는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을 진행한다.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와 2018년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강원 2개 지역은 지역의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각 2개씩 20개를 여행주간에 운영한다. 여행주간 인기 아이템인 '만원의 행복 기차여행'은 2880명을 대상으로 20개 코스로 진행된다. 14개 코스는 서울, 6개 코스는 부산, 광주, 원주, 전주 등 각 지역에서 출발한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아놀자, 신라스테이, 카카오 등이 참여해 기획상품 운영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2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추석 연휴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과 국립과학관 할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가위 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여행주간 홍보물을 제보하는 '찾아라 여행주간', 국내여행 참여 사진 인증 '떠나자 여행주간' 등의 이벤트와 휴가 문화개선 캠페인 '유휴어택'을 실시한다.

●6년째 맞아 들은 잡했지만 결정적 '한방'이 여행주간은 해마다 거듭되면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초창기 백화점식의 나열형 행사에서 벗어나 이제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의 내용과 운영에서 조금씩 내실도 갖춰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행주간은 일반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대국민 행사인데, 문제부 관계자의 말을 빌

리면 인지도가 아직도 30% 안팎이다. 여행주간의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고심하던 문제부는 이번에 행사를 알리기 위해 핑클 멤버들이 출연한 jtbc '캠핑클럽'과의 연계 이벤트를 진행했다. 여행주간을 알리는 광고에 프로그램 장면이 등장하고, 행사 기간에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핑클 멤버들이 '캠핑클럽'에 출연하는 동안 여행지서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진행한다. 심지어 여행주간 홈페이지에서는 '캠핑클럽'이란 이름을 붙여 응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기 프로그램의 이름과 스타들의 이미지를 빌려오는 것으로 과연 행사 인지도가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6년째인데도 아직도 여행주간 하면 머리 속에 떠오르거나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여행주간은 자연스레 마음 속에 자리잡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월드의 가을시즌 할로윈 축제에서 좀비 특수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연기자들. 사진제공 롯데월드

롯데월드 '호수마을'에 좀비 바이러스?

롯데월드 어드벤처(대표 박동기)는 8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할로윈 축제를 실시한다.

올해는 '호러 할로윈 The Invitation'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먼저 자이로드롭 뒤편 석촌호수 지역의 '감염된 호수마을'에서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예고없이 나타나는 좀비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 '좀비병동:고스트 하우스'는 영상과 특수효과를 혼합한 리얼 호러 4D 씨어터이다. '데스

티네이션:환타지 드림'과 '라스트 벵커:아트란티스 출구', '미궁x저택' 등 테마 어트랙션의 강도도 높였다. 호러 할로윈의 대표 퍼포먼스 '통제구역M'은 신규 거대 좀비가 추가되는 등 전년도보다 연기자 수를 약 20% 늘렸다. 고객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감독의 분장실'은 실제 어드벤처 3곳, 매직 아일랜드 2곳에서 운영한다. 방문객이 거대 좀비와 함께 하는 플래시몹 형태의 퍼

이달 31일부터 '호러 할로윈' 축제 '자이언트 좀비 MOB' 등 퍼포먼스

포먼스 '자이언트 좀비 MOB'도 있다. 실제 어드벤처에서는 30주년 기념 콘텐츠와 남녀노소 즐기는 큐티 할로윈 콘텐츠를 운영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덕션 맵핑쇼 '미라클나이트', LED 미디어 어트랙션 '매직 서클', 메인 퍼레이드인 '해피 할로윈 파티 퍼레이드',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큐티 할로윈코스프레 파티' 등 다양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보조금과 지원금 최대 363만원 받고 친환경 전기 삼륜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WIND-K1 (2륜)

WIND-K2 (3륜)

친환경 전기 삼륜차

2019 정부지원 보조금 대상차량

환경부 보급평가 시험통과 제품

국토교통부의 형식승인 제품

전자파 적합성 등록 제품

소비자가 528만원

정부 보조금 309만원 + 회사 지원금 54만원

※ 기존 오토바이 폐차 시 20만원 추가 지원

렌탈가능 하루 2,000원씩 한달 60,000원

고객부담금 165만원 (vat포함)

【특장점】

- 최대속도 : 46km
- 동급최대 44%(26%)
- 후진 기능
- 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장착으로 사용기간 향상
- 남녀노소 편한 승차차
- 가정용 220V로 어디서나 쉽게 충전
- 도난 방지 장치

- 최대주행거리 : 1회 충전 시 52.3km(평균 주행 시 60km)
- 언덕길 밀림 방지장치 적용(브레이크 조작 없이도 뒤로 밀림 방지)
- 월 5천원 미만의 경제적인 유지비
- 충격 흡수장치와 흔들림 방지 장치 기술적용(특히출입 중)
- 편리한 조작성
- 이론보다 안전한 심문

【MBC 뉴스타치 발제】

미세먼지 주변 오토바이 전기오토이로 바꾼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 됐습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당장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지만 우리 생활 주변부터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언한 지자체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 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서울시는 배달 수요가 많은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업체 등과 협력해서 오토바이 10만대를 오는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형 마을버스 440여대를 전기버스 교체하고 전기 차나 LPG 차로 전환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는 종로구 8개동과 명동 소공동 등 북대교동 지역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는데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배기 가스 눈에 딱 보여서 신경쓰일 때가 있었는데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다니 다행입니다.

【전시장 위치】 서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역로 140, 6층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01, 속초팜파사리조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례동 103-1, 대동빌딩 2층 전국마라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동43, 강정미트 3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1길 41-12, 제주팜파사리조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광로 35(용담1동) WIND-K2 전시장

상담전화: 1811-6333

(주)월드클린에너지

NAVER

팜파사리조트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 출퇴근 직장인
- 간는게 힘든 부모님
-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나 공원 등 다니실 분
- 공정 밀집지역이나 시장 등 거처를 왕래하는 회사
- 동네 마트, 시장, 지인 만남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계약 고객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혜택

- 01 속초 팜파사리조트 무료숙박권 5매
- 02 제주 팜파사리조트 무료숙박권 5매
- 03 고급 와인 3병

기회 놓치지 마세요!!

황영조 감독, 스포츠 해설가(1992년 브라질월드컵 감독)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건강과 환경에 연관 있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는 매우 매력적이고 10~20km의 거리를 이동하거나 적은 돈을 운반할 때도 편하고 승차감도 좋습니다. 타보지던 기존 다륜 오토바이들에 비해 장점이 많은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이용종 소장(명조 개발팀)

현재 운영중인 애견 콘텐츠에서의 사용은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조용하고 안전하며 편리성과 유지비까지 몇 천원 정도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스쿠터를 고민하신다면 스쿠터형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권해드립니다.